

탈북민·고려인·주민 소통... 통일 한국 뜻 모은다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 (17)
— 제3부 탈북민 정착 돕는 손길 —
② NK비전센터

▲지난달 8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에서 NK비전센터가 주최한 북한학교 강의. <NK비전센터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 '손에 손잡고' 호남지부로 출발 광산구 월곡동에 오픈...이탈민 등 20여명 활동

NK비전센터(New Korea비전센터)는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한 통로이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각지에 있는 800만여명의 동포들과 함께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이다.

첫 시작은 북한동포와 더불어 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손에 손잡고' 호남지부로 시작했다. 2013년 여름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무실 내고 박우철 대표와 12명의 간사가 활동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을 지원했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광주로 배정받은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왔다. 그러다 2015년 연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건물을 빌려 3개월간의 수리를 거친 뒤 지난해 3월 5일 'NK비전센터'를 오픈했다. 사무실 바로 옆에 '아르빈 카페'도 함께 열었다. 광산구 월곡동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깝고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아르빈 카페는 가끔 카페에 찾아오는 고려인 아이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수는 물론 아이스크림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NK비전센터는 아르빈 카페를 통해 탈북민과 고려인, 인근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현재 NK비전센터에는 박우철 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간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는 북한학교를 수료한 사람들과 2명의 북한이탈주민도 통일 한국의 뜻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현재 NK비전센터의 간사들은 광주에 거주하는 120여명의 탈북민과 서로 연락하며 교류하고 있다.

NK비전센터는 ▲북한학교 ▲밥상공동체 ▲목요기도모임 ▲

■ NK비전센터 주요 활동

- ◇ **북한학교**
3·9월 매주 월요일 북한 전문 교수 등 참여 북한 돕는 방법·통일 한국 준비 과정 강의
- ◇ **밥상공동체·명절 남북 음식 한마당**
- ◇ **문화사역**
토크 콘서트·탈북민 연극·자선음악회
- ◇ **구출사역**
중국 방문, 탈북민 안전천 이동 돕기 제3세계 등 탈북 2세 구출 앞장

문화사역(음악과 연극공연) ▲겨울맞이 김장나눔 ▲남북한 명절 음식 나눔 한마당 ▲구출사역 ▲탈북 2세 고아사역 등을 진행해 하나의 한국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학교'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법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르쳐 준다. 3월과 9월 두차례 개강하여 12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와 선교사 등을 강사로 내세워 북한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기로 시작한 북한학교는 수료한 학생들만 400여 명이 넘는다.

현재 북한학교는 지난 3월부터 9기가 진행 중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광주에 있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밥상공동체'를 운영한다. 밥상공동체는 한 밥상에서 서로 밥을 나눠 먹으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밥을 먹기 전 서로 식탁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남과 북의 음식을 서로 장만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안고 품으며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모임이다.

매년 설과 추석에는 '남북한 명절 음식 나눔 한마당'을 진행한다. 떡과 나물 등의 명절음식은 물론 북한식 순대, 두부밥 등 북한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나눠 먹는다. 이날 참석자들은 웃음이 전통놀이도 하고 고향의 노래도 부르며 함께 명절을 보낸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외로운 탈북민에게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행사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장철에는 '북한식 김치'를 만들어 탈북민과 나눈다. NK비전센터에서는 매년 2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김장할 형편이 되지 않는 탈북민들에게 직접 전해준다. 이 밖에도 '탈북여성과 함께하는 인권이야기' 제목으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와 탈북민들이 직접 공연하는 연극, 가을에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인 '평화음악회'를 열고 있다. 현재는 일손이 부족해 잠시 중단됐지만 고향을 떠나 떠돌던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살롱학교'를 진행했다.

NK비전센터는 구출사역을 통해 직접 중국에 방문하거나 현지 팀과 연락해 굶주림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탈북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어린 나이에 제3국이나 중국으로 팔려간 이들을 구출할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사랑방 사역을 통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목요기도모임을 통해 북한에 대한 소식 등 정보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NK비전센터 김방훈 간사는 "통일이라는 말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통일에 대한 작은 준비조차도 되지않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NK비전센터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탈북민들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NK비전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공동체'행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저녁식사를 하기 전 식전행사로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있다.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

신흥부유층 '돈주' 자금 양성화...북한식 개방 의지 담겨

북한이 '돈주'(신흥부유층) 등 개인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북한의 기업소법(2014년 11월 개정)을 보면, 제38조에서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인 2010년 11월 개정 당시의 기업소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개인의 여유자금을 의미하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장화가 확산하면서 신흥 부유층인 '돈주'가 등장하는 등 개인 소유자금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암묵적으로 유통되던 돈주의 자금을 법 개정을 통해 양성화해 기업 활동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개인들이 여유 자금을 기업소에 '투자'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돈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돈주의 투자를 합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업소법은 또한 공장과 기업, 상업 등의 '기업소'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54조는 '내각은 기업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바로 행사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구현한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자율경영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을 구현한 규정·세칙들을 제때에 작성·시달하라'는 대목이 있어 여전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원칙을 담은 제4조와 기업소의 경영권행사를 규정한 제29조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는 기업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 기업소법은 아울러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 실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교수는 "북한의 개정 기업소법에 경제개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여성부, 여성 탈북민 취업지원 강화

남녀 취업률·임금 격차 심해 고용부·교육부 등에 권고

여성가족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데 성별 격차가 크다고 보고 여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률은 남성 84.6%, 여성 51.5%로 33.1%포인트 차이가 있다. 월평균 임금도 남성 180만4천원, 여성 130만3천원으로 50만원 이상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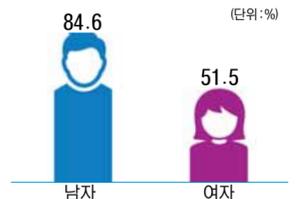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이런 성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 다각화 등 개선을 권고했다.

지역적응센터(통일부)·고용지원센터(고용부)·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등으로 흩어진 교육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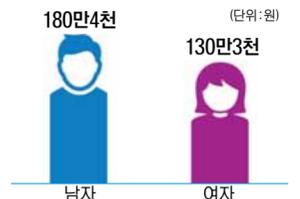
여가부는 학교 체육활동에도 양성평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남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탓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가부는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 지도요령·방법이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

■ 북한이탈주민 취·창업률 (단위: %)



■ 북한이탈주민 월 평균 임금 (단위: 원)



등 교과목을 편성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여성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실적을 조사하고 성별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도 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권고받은 부처는 오는 9월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6월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